

고대 거울 '빛'이 들려주는 이야기

'화순 대곡리 정문경', '무령왕릉 의자손수대경'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국보이며 거울이다.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보는 미용 기능 외에 주요 의식에 사용했던 사물이다.

특히 고대 사람들은 거울을 주요 의식에 사용할 만큼 신성시했다. 과거에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만 소유할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는 다채로운 거울이 출토됐다. 거울에 새기는 장식 또한 시대마다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그 가치의 의미가 상이하다.

고대 거울을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나주박물관(과장 김상태)에서 내년 2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거울을 조명한다. '빛, 고대 거울의 속삭임'이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거울을 통한 옛 사람들의 의 사공간을 뛰어넘는 '대화'라 할 수 있다.

거울 외에도 함께 발굴된 유물 등 270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 이번 전시는 국보 2점(화순 대곡리 정문경, 무령왕릉 의자손수대경)을 비롯해 평양부터 제주도에 이르는 거울이 한자리에 집결됐다.

함평 엽다리 제동고분을 비롯해 고흥 신희리 동호덕고분, 신안 대천리, 경주 사리리에서 출토된

국립나주박물관, 내년 2월9일까지 '고대 거울' 모티브 전시 국보 화순 대곡리 정문경·무령왕릉 의자손수대경 등 눈길

거울들이 최초 공개돼 이목을 끈다. 전시는 모두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정동거울의 제작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꼭지가 달린 거울을 살펴본다. 화순 대곡리 거울은 꼭지가 달려 있어 이색적인 모형을 띤다. 옛 사람들이 동그런 거울을 얼굴을 보는 기능으로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부는 '고대 거울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탐구하는 공간'에 초점을 맞췄다. 거울을 가질 수 있었던 이들의 사회적 신분, 즉 이들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거울과 함께 출토된 다양한 소장품들은 당대 사회상을 규명할 수 있는 유물들이다.

옛 사람들의 내세관은 물론 동아시아 교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도 있다.

3부 '거울을 통해 본 동아시아 교류와 거울에 담긴 고대 사람들의 내세관 소개'에서는 거울의 분포 양상 등을 살펴본다. 고대 한반도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제작된 거울들이 많이 유입됐다. 분포지와 유통 경로, 교류 거점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당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역학 관계

등을 가능할 수 있다.

거울에 새겨진 다양한 무늬와 글에는 고대인들의 내세사상이 투영돼 있다. 망자와 함께 묻힌 거울이 망자의 내세를 환하게 비추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전시를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도 활용된다. 관람객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고대의 시간을 가능할 수 있다.

관람객 누구나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있다. 옛사람들이 거울에 남긴 다양한 무늬와 글자를 찾아보고, 알록달록 나만의 거울도 만들어 본다. '알록달록, 소원을 담은 거울',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 거울에 투영했던 고대 사람들의 소망과 의미 등을 찾아보는 것도 쓸쓸한 즐거움이다.

김상태 과장은 "이번 전시는 나주박물관 외에도 발굴조사 기관들의 협력으로 진행돼 더 뜻 깊다"며 "거울이 환기하는 의미와 고대 사람들의 삶의 양식, 내세관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흥 동호덕 거울'



'화순 대곡리 거울'



양상블 오프스 공연 장면.

(양상블 오프스 제공)

아트위크 양상블 오프스의 '꿈꾸는 저녁'

7일 광주예술의전당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입상했던 백주영, 워싱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윤소희, 노르웨이 라디오 심포니에서 객원 수석을 역임한 이경준 등... 국제 무대를 누비는 예술가들이 건네는 클래식 '선물'.

양상블 오프스와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 '아트위크 양상블 오프스의 꿈꾸는 저녁'을 오는 7일 오후 3시 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2009년 창단한 양상블 오프스 단원들이 출연해 모차르트, 드보르작 등의 곡을 들려준다.

류재준 '캐럴 변주곡'으로 막을 올리는 공연은 모차르트 '클라리넷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오중주, K581', 드보르작 '현악 육중주 Op.48'로 이어진다.

시벨리우스, 파가니니 등 주요 국제 콩쿠르를 석권한 서울대 음대 교수 백주영 리더(바이올린)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음대

조교수로 재직 중인 송지원(바이올린), 연세대 음대 교수이자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지휘자 김상진(비올라)도 선율을 더한다.

샌프란시스코 음악원에서 실내악 전문연주자과정에 재학 중인 윤소희(비올라), 한국인 최초로 말보로 국제 음악제에서 레퍼토리를 선보였던 첼리스트 백나영과 불가리아 영 비르투스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기록한 이경준도 무대에 오른다. 클라리넷 연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종신 수석을 역임한 조인혁.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양상블 오프스는 그동안 국내외 유능한 작곡가, 연주자들과 교류를 통해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왔다"며 "개성 있으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곡 위주로 편성해 관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전당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은 내년 2월 9일까지 거울을 통해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빛, 고대 거울의 속삭임' 전시를 연다.

'이상과 공상'의 차이 그리고 그 경계

키키 작가, 27일까지 주안미술관

이상과 공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경계는 어디일까.

현실을 토대로 더 나은 것을 찾는 게 이상이라면 비현실의 세계를 꿈꾸는 것은 공상이라 할 수 있다.

주안미술관에서 오는 27일까지 '이상과 공상'을 주제로 키키 작가가 전시를 연다. 작가는 어린 시절 스스로 만들어낸 캐릭터 '키키'를 필명으로 사용한다. 보라색 머리카락에 긴강의 모습을 한 외모는 보는 이에게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작품은 유머러스한 캐릭터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전시장에 들어선 관객들은 키키가 보여주는 이상과 공상의 경계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즐길 수 있다.

송진주 학예사는 "이번 전시는 작품 속 키키와 작가 개인 키키의 일면을 타자화하거나 동질화하면서 공상과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시간"이라며 "관람객들이 자신이 그리는 이상 세계와 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는 모두 네 개의 섹션으로 짜여져 있다. 첫 번째 '현실'에서는 키키의 불안과 고립의 감정을 초점화한다. 두 번째 '이상'에서는 키키가 갖고 있는 욕망,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 사이의 불안 등을 탐색한다. 경험과 상상이 혼합된 세 번째 '공상'은 현실과 비현실의 간극 만듦이나 이체롭다.

마지막 '지지(地支)'에서는 다원화된 상상력을 토대로 시간과 이야기를 주목한다. 상상과 내면 현실과 이상, 공상과 상상 등 경계를 무화시키는 영역들은 작품을 색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기폭제다.

키키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우리의 꿈과 공상은 허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는 매개체"라며 "비현실이 아닌 삶의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사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주안미술관이 신진 작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진주귀고리를 한 키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역사와 현재'

전남문화재단 심포지엄, 13일 서울 아트코리아랩

수목비엔날레는 전통수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수목과의 융합을 통해 세계 속 K콘텐츠로 나아가자는 방향을 담고 있다. 문화적 자산, 역량을 집중해 다른 국제적인 문화행사와 차별화해 세계화로 도약하려는 의미가 있다.

2025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전남문화재단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아트코리아랩 6층 AKL아고라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 주제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역사와 현재'.

먼저 배원정 학예사가 '수목화의 용어사용 문제와 코스모폴리타니즘-수목비엔'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예승 작가는 '수목의 정신과 기술 기반시대의 방향성'을, 윤율리 책임큐레이터는 '한국화 전시의 동시대적 가능성과



윤재갑 총감독

한계'를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토론자와 사회자가 참여해 수목비엔날레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재갑 총감독은 "이번 심포지엄은 수목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며 예술적 가치의 재발견과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열리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박의혁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NEC예술기획, 10일 남구문예회관

피아니스트 박의혁은 정경화, 대니구 등이 졸업한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피아노 연주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광주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한미 대사관 주최 열린음악회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국립오케스트라 초청연주, 소피아 솔로리스트 오케스트라와 러시아 순회 연주 등에서 이름을 알렸다.

NEC 예술기획이 피아니스트 박의혁 독주회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을 오는 10일 오후 7시 광주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펼친다. 뉴에이지 감성을 통해 24개 피아노곡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자리다.

겨울을 중심으로 봄, 여름, 가을 등 사계절을 모티브로 한 작품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먼저 'First Love'로 시작하는 공연은 겨울 감성을 자극하는 'The First snow'로 이어진다. 고야한 선율의 'Grace', 'Nocturn'은 물론 '태양을 가리다' 등 그의 대표 레퍼토리를 펼쳐 보인다. '봄-Flower Garden'과 'Desiring', '오월', '말리꽃' 등은 희망을 전지하는 곡들로 앞의 작품과 분위기 측면에서 대조를 이룬다.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Autumn', '바람', '미몽'도 곡목에 있다. 이외 낭만적인 겨울 분위기를 선사하는 'White christmas', '선물', '겨울 Happy Ending' 등이 올려 퍼진다. '고요한 밤', '겨울비', 'Longing for you' 및 'Natale



피아니스트 박의혁.

(NEC 예술기획 제공)

'Treiste' 등 개성 있는 작품들도 관객들을 만난다.

박의혁은 "관객들께서 사랑해 주셨던 기존 곡과 새로운 작품을 포함한 총 24편 피아노곡으로 연말 연시 분위기를 돋우려 한다"며 "내년에는 새로운 음악 단체를 창단하려 준비 중인데 이번 리사이틀이 그 음악적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했다.

전석 2만 원, 인터파크 및 현장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